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주민배심원

35명 위촉 · 본격 시동

정읍시가 민선9기 공약의 실행계획과 조정 필요성을 시민 눈높이에서 살필 주민배심원 35명을 위촉했다.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9기 공약사업 주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은 뒤 전화면접을 진행했다. 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신청도 함께 받아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35명을 최종 선정했다.

배심원 회의는 8월 21일과 28일, 9월 11일 등 모두 세 차례 열린다. 9월 11일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토론과 전체 투표를 진행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 시는 주민배심원단이 제시한 의견과 권고안을 검토해 민선9기 공약사업에 반영하고,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공무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 실시

고창군이 지난 21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고창군 소속 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 청렴전문강사 정승호 강사를 초청,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직자 청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하여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고창군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고창 실현'을 목표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 점검 등 부패발생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애인콜택시 아파트 출입 개선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출입 등록 요청... 장애인 · 고령자 아파트 동 앞에서 안전 승차 기대

아파트 출입 통제로 단지 입구에서 승객을 내려줘야 했던 정읍 장애인콜택시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읍시는 지난 18일 지역 주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관리소장과 면담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의 상시 출입 등록을 요청했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 장애인콜택시가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걷기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가 단지 입구에서 내려 아파트 동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동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시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들은 장애인콜택시 출입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아파트는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전체 차량을 사전에 등록해 단지 출입

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로 했다. 다른 아파트도 전체 차량을 등록하는 한편, 현재 마련 중인 주차 규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상시 출입 허용' 조항을 담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확대되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단지 입구가 아닌 아파트 동 앞에서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신규 공무원과 소통간담회

회의실 벗어나 식사 나누며 14명 공무원과 공감대 형성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19일 지난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14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조직생활의 어려움과 업무환경 개선 의견을 들었다.

정읍시는 이날 신규 공무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브런치토크)'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장과 식사를 하며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느낀 점과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조직문화와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공무원들의 참신한 제안도 이어졌다. 시장과 직원들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며 세대와 직급에 따른 인식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넓혔다.

시는 민선 8기부터 시장과 신규 공무원이 만나는 간담회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민선 9기에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시장과 조직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급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은 정읍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구성원인 만큼 솔직한 생각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년여행 프로그램 '해찰여행사' 첫 번째 여행 성료

고창의 생물권보전지역 주제로 2박3일 진행

고창군의 세계유산과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경험하는 청년여행 프로그램 '해찰여행사'가 첫 번째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고창군 청년마을 '비책기지'가 기획·운영한 해찰여행사는 천천히 걷고 오래 바라보며 지역의 사람과 이야기를 만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이다.

'해찰'은 전라도 방언으로 '딴짓'을 뜻한다. 정해진 관광 동선을 빠르게 따라가기보다 잠시 멈추고, 주변을 살

펴보며 고창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이야기를 만났다.

특히 운곡저수지에서는 수몰된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과 삶의 기억을 만났고, 명상을 하며 자연의 감각을 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서점마을에서는 '우리술도가 새봄' 이신미 대표와 함께 고창의 지역문화와 전통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매일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작은 책 형태의 '진(zine)'으로 직접 제작했다.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진을 펼쳐보며 여행의 순간과 각자의 시선을 공유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나홀간 2026 을지연습 마무리

무인기 테러 · 공습 등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해 대응 점검

정읍시가 자폭형 무인기 테러와 공습 등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해 나홀간 2026 을지연습을 마무리했다.

연습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종합상황실 운영과 전시 조직 편성, 전시에 새로 설치되는 기구의 운영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주요 인력과 장비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훈련도 실시했다. 전시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상황별 대응 절차를 서류와 지도로 점검하는 도상연습을 통해 비상행정체계 전반을 살폈다.

제2점사에서는 자폭형 무인기(드론) 테러 상황을 가정한 실제훈련이 펼쳐졌다. 훈련에는 정읍시와 정읍경찰서, 전북경찰청공대, 8098부대 3대대, 35사단 EHC, 6탄약창 EOD, 화생방대대 CRST, 정읍소방서가 참여했다.

각 기관은 현장을 통제하고 무인기



조종자를 수색했다. 자폭형 무인기에 설치된 폭발물을 확인·제거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판별하는 한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까지 실제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를 수행했다.

공습 대비 주민대피훈련과 긴급차량길 터주기 훈련도 진행했다. 시민들에게 공습경보가 울렸을 때의 행동요령과 대피 방법,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의 양보운전 요령을 알렸다.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6년 제2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내달 12일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 공연 앞두고 만전

부안군은 21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9월 12일 부안해돋이마루에서 열리는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 및 공연을 앞두고,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총 12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장 질서 유지와 소방,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보안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다수의 인파가 유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순간 최대 관람객 물림에 대비한 관람객 동선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사 당일 혼잡을 막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에 의견을 모았다.

부안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도출된 보안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즉각 반영하고, 행사 개최 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소를 최종 점검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직원들이 부안군농민재육성재단의 '1군민 1후원 계좌 갖기' 홍보 릴레이에 함께했다.

이날 재단은 새만금도시과 직원들에게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 취지와 후원계좌 가입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사회에 전방에 나눔 참여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요청했다.

새만금도시과 직원들은 농농장학금 지원 내용과 후원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부안의 미래 인재를 함께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은 "마음을



나누는 일은 결국 좋은 인연과 복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작은 나눔이 부안 전체에 따뜻한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자연

고유생물의 서식지

고창 갯벌

전주매일 캠페인

고창갯벌은 곰소만에 넓게 형성되어 있는 갯벌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서규조류 생물종을 보인다. 또한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최대 서식지로 유명하다.

고창갯벌은 약 194종의 저서규조류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바지락과 동족이 서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고창갯벌은 100여 종, 20만 마리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중 IUCN 적색목록 21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EN등급)인 황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 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황해 고유종인 범게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고창갯벌에는 펄갯벌 위에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사질 퇴적체인 셰니어(Chener)가 관찰된다. 셰니어는 자갈, 조립질 모래와 조개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의 영향을 받아 육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셰니어는 펄갯벌에 둘러싸여 있으며, 바닷물에 잘 잠기지 않아 철새들의 동지 및 휴식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